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1. 일본특사의 예상 발언 요지

(아베총리는 1월 1일 누카가 특사를 자택으로 불러, 한·일 관계 중시 입장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당선인님께 전달할 것을 지시함.

누카가 특사는 아베 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로부터 박 당선인에게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음)

□ 당선 축하

한일 양국에서 모두 신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좋은 출발이 되길 희망

□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

□ 앞으로 당선인님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차원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취임식 참석 시사 가능성) 당선인님과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

□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당선인님의 방일 초청)

※ 일본 특사단

누카가 후쿠시로 前 재무대신, 가와무라 다케오 前 관방장관, 아이사와 이치로 前 자민당 총재 보좌 (3명)

- 각각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 운영위원장, 간사로 재임중
- 1.4(금) 도착, 14:00 당선인 면담, 15:00 외교장관 면담 후 귀국
-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특사로도 방한했었음.

2. 인사말씀

- 아베 총리께서 한·일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일·한 의원 연맹 소속 의원) 세 분을 특사로 파견해 주셔서 감사함.
아베 총리께서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신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함.

- 아베총리의 취임(12.26)을 저도 축하함.
아베 총리(당시 관방장관)와는 제가 지난 2006년도에 한나라당 대표로 방일했을 때, 함께 만찬을 했었는데, 그 때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남.
누카가 특사는 그 때 방위청장관으로 계셔서 공식 면담도 하고, 함께 식사¹⁾도 했었던 기억이 남.
앞으로 아베 총리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

※ 참고 : 당선인님-아베 당시 관방장관간 만찬(06.3.7)

(2006년 당시는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져, 한일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현재 상황도 그때와 비슷한 점이 있음.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10년에 60%대였으나, 2012년 말에 39%로 저하되었고, 한류 열기도 크게 식었다고 함)

- 아베 장관 : 한일관계가 부드럽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하신 것은 용기 있으신 일임.
- 당선인님 : 앞으로 한일양국은 안보, 동북아 평화, FTA체결 등 협력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 양국관계의 경색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말과 행동이 그에 따라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 세대에 이 문제를 풀어 후세에 짐을 넘기지 말자.
- 아베 장관 : 일본은 전후 6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과거사 문제가 여타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억지할 필요가 있음.

1) 모리 전 총리 주최 만찬에 누카가 특사도 참석했었음.

3. 일본 국내정세

□ 자민당이 작년 12월 선거에서 3년 만에 재집권²⁾한 것을 축하함.

자민당은 전통적으로 한국중시의 노선을 취해 왔는데, 양국 국민들은 아베 정부의 출범이 현재 다소 소원한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아베 총리께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함.

한국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는 말이 있는데, 한·일 양국의 새 정부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떻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함.

○ (일측이 “독도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입장임을 언급시)

- 불언급 (미소로써 답함).

※ 독도문제가 면담시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언급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2)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 총 480석중 과반수 이상(294석)을 획득,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31석 획득)과 합할 경우 중의원 의석의 2/3 상회

4. 한일 관계

□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³⁾시켜왔고, 큰 성과를 거두었음.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야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함.

한·일관계의 긴밀한 발전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나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비전⁴⁾ 실현을 위한 첫 단추임.

□ 양국은 “역사를 직시하면서”⁵⁾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간에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가 강조하는 신뢰외교는 한·일관계에도 꼭 필요한 것임.

※ 당선인님은 고이즈미 총리를 만난 자리(06.3.8)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無信不立 좌우명을 거론하시면서 신뢰외교를 강조하셨음.

-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큰 초석을 놓은 총리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한일 정상외교 관련>

□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 활성화 희망시)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최근 한·일 정상의 방문 현황

- 이명박 대통령 교토 방문('11.12월)

- 노다 총리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12.3월)

3) 일본은 우리의 제2위 교역국,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국

4) 당선인님께서 2006년에 방일시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고, 2010년에 한·일·중 정상도 2020년까지 공동시장 실현 약속함.

5) 외교부등과 협의한 결과 (1)역사를 직시하면서, (2)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3)역사갈등을 극복하고자 3가지 중에서 (1)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선인님이 기존에 말씀하신 (2)의 의미와 사실상 동일하면서 일본특사의 축하방문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일본측도 반발하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희망시)

취임식 참석을 환영하며, 아베 총리와의 재회를 고대함.

(우리측의 취임식 초청 희망시)

취임식에 대한 외빈초청 원칙 등은 향후 행사 계획 마련 과정에서 확정해 나갈 것인바, 검토해 보겠음.

※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례

- '04년 : 고이즈미 총리 참석(우리측 초청)
- '08년 : 후쿠다 총리 참석(일측 참석 희망)
 - 주한대사 이외에 정부 대표는 초청하지 않고,
정부 고위 인사 참석 희망시 접수 원칙

(아베 총리의 금년중 별도 방한의사 표명시)

방한을 환영하며, 구체사항은 양국 외교당국을 통해 협의해 나감.

※ 참고 : 우리측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5-7월경
한국 주최 예정임

(방일 초청시)

초청에 감사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 및 형식 등을 협의하겠음.

<양국 의원연맹간 교류활성화>

- 한·일 양국의 의원간 교류는 전통적으로 양국관계에 있어 중요한 협의채널로 역할을 해 왔음.
양국의 의원연맹이 그 중심에 있어왔는데,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함.

다음 주에 우리측 의원연맹 대표단이 민단신년회 참석차 방일하는 계기에 일본의 정당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듣고 있음.
건설적인 협의를 기대함.

6) 특사단이 일한의원연맹 임원진이기에 때문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 있음.

※ 주일대사와의 조찬('12.12.27)시 누카가 의원은

- 일본 총선 이후 한·일/일·한 의원연맹 재구축 및 재활성화 문제는 일측도 많이 신경쓰고 있으며, 일·한 의원연맹 회장 선임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라고 얘기함.

※ 한·일 의원연맹 임원진('12.11월 구성)

- 회장 : 황우여 의원, 회장대행 : 김태환 의원,
간사장 :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상임간사 : 심윤조 의원

※ 민단 신년회 참석 예정 의원 현황 :

- (여) 황우여, 김태환, 남경필, 심윤조, 길정우
- (야) 이낙연, 강창일 등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강화〉

□ 지금 서울 명동에 가면 일본 분들이 반이라고 할 정도임.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서로 많이 방문하고, 서로의 문화를 즐기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음.

□ 앞으로 한·일간의 더 많은 대화와 만남이 중요하다고 봄.

양국의 지식인, 언론인, 경제인 등 각계 각층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청소년 교류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간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함.

5. 한일관계 민감한 핵심 현안(일본측이 언급시 대응)

□ 독도 문제

- 최근 한·일간 독도 문제는 일측이 정상간 회담 및 외교장관간 회담에서 의제화(공식화)하려는 집요한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의 대응이라는 양상이며, 고위인사 친서 문제도 마찬가지임
- 일측은 어떤 형태로든 공식화, 기정사실화하여 대외 홍보하려는 전략
- 우리측 입장은 독도는 역사문제로서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측이 언급하더라도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그간의 정부 입장이었음.

(일본측 언급시)

- 불언급 (독도문제가 정상간 면담시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가피할 경우, 독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양국간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의 기본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본측이 현명하고 분별있게 행동하기 바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측이 기피하는 사안으로 선제언급 가능성이 희박함.
- 우리로서는 개별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큰 틀에서 역사에 대한 일측의 올바른 인식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
- 건강한 한일 관계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라 생각함.
- 한일 양국은 불행했던 역사의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그 분들의 나이가 80세 중반을 넘기고 있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류창 문제

-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범죄인 인도(引渡) 재판'을 받아 온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법원이 3일 결정함.
- 류창은 지난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으로 건너와 작년 1월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검거됨. 류창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일본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음.
- 류창은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며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이에 경고하기 위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함.
- 법원은 류창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거절 사유인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환영의 뜻을 표함. 공교롭게도 아베 신임 총리가 당선인님께 특사를 보내기 하루 전에 중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서, 아베 총리의 특사가 어떤 형태로든 류창 석방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음.

(일본측이 유감 표명시)

어제 판결은 한국의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임.
그 결정이 일본측의 기대와 차이가 있겠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측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한·일 정보보호협정 등 안보협력 강화 제안시

-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한·일 FTA 협상 조속 개시 희망시

- 한·일 FTA는 경제적으로 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협상재개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함.

※ 한·일 FTA 논의 동향

- 03.12월부터 6차례 한·일 FTA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04.11월 협상 중단
- 2008부터 2011년까지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6차례 개최
- 2012년중 과장급 실무협의 3차례 개최

6. 마무리 말씀

- 다시 한번 방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정부가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 아베 총리께도 저의 각별한 안부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